

명실상부한 국내최고 ICT R&D 전담기관 ‘IIT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ICT R&D 결과물이 사업화에 성공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산실로 나아가겠습니다.”

그토록 많은 ICT 전문가들이 요구한 융·복합과 개방의 4세대 R&D에 합당한 ‘ICT R&D·사업화 전 주기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을 근거로, ICT R&D의 총괄·조정 및 전주기 R&D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기관에 분리된 ICT R&D 관리기능을 통합·재구성해 지난해 여름(6월 5일) 출범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ICT R&D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ICT R&D 관리기능은 5개 기관에 분산되어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수행기관들의 혼란이 매우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급변하는 ICT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조적 R&D가 사업화로 이어져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R&D 전주기의 유기적 통합과 연계를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져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ICT특별법에 근거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 NIPA 부설로 IITP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IITP 현판제막식('14.6.5)

특히, ICT R&D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연구현장에서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음은 물론이고, 창조경제의 핵심 실현동력으로써 ICT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 역시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ICT R&D의 전주기를 통합·지원할 IITP의 출범은 우리 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 ICT산업은 민간의 도전 정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연구자들의 밤낮 없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신흥 경쟁국의 위협,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 영원한 1인자는 없다는 글로벌 1등 신화의 몰락 등 우리 ICT산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변화는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 안주해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ICT R&D는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판을 조성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R&D 패러다임이 창의·융복합 기술개발과 개방형 혁신기반의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둔 4세대 R&D 혁신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ICT R&D,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IITP 역시 급변하는 경제·사회·기술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이 자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IITP가 우리나라의 ICT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창조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주기 통합 기관으로써 출범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진보한 R&D 전담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에 IITP는 앞으로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방향에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추진할 내용은 CP(Creative Plan-ner, 민간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기획그룹을 중심으로 ICT R&D 전주기 서비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 연계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기획→평가·관리→사업화로 이어지는 R&D 수주기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ICT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조적 R&D가 사업화로 이어져 창조경제의 실



4세대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IITP 설립

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IITP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ICT R&D 기획의 기본은 R&D의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이며, 이를 위해 R&D 기획에 사업화 전문가, 중소기업 관계자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며, 특히, 창조경제타운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R&D 기획에 반영하고, 연구기관 및 산·학·연 간 융합연구, 해외 연구인력과 공동연구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수한 ICT R&D 성과가 그대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성과확산단, 기술거래단'을 각각 두고 사업성 공물 제고를 위한 ICT R&D 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 연구 성과의 확산, 상상력과 창의력의 상품화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신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특히 R&D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R&D 성과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 기반의 추가연구개발(R&BD)을 지원하며, R&D 성과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및 정보접근성 제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화를 고려한 평가체계'와 'R&D 수행 중의 사업화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추진 과제에 대해 시장수요와 기술사업화 관점의 성과지표를 활용한 질(Quality) 중심의 평가와 관리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평가위원제, 기술배심원제와 토론식 등 개방형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연구기간의 일정기간 이상을 기술이전, 사업화 기간으로 편성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실패과제로 낙인되었던 조기종료, 성실실패 등의 대한 내용도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종료후 추적평가, 사업화까지 감안한 최종평가 시기조정 등 새로운 제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IITP는 더 이상 ICT R&D를 관리(management)하는 기관이 아닌, ICT R&D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support)하고 서비스(service)하는 전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센터

내 조직운영, 업무 프로세스, 직원 마인드 등을 모두 업그레이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이상 관리가 아닌, 연구자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IITP의 전직원이 모두 함께 고객과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술, 시장 동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고객인 연구수행기관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R&D 평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IITP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ICT R&D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신생조직으로써 조직기반 안정화와 업무 효율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IITP는 조직·업무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ICT R&D 전주기 통합서비스의 발굴·제공을 통해 연구현장에 친절한 ICT R&D 전담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나며, 우리 ICT 산업이 글로벌 First-Mover로 우뚝 설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